



비매품
03800
9 791188 729227
ISBN 979-11-88729-22-7



태연자적 태장2동

태장2동 이야기 마을기록화 사업

원주의 문화정체성과 도시이미지는 태장2동 마을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생명의 땅 원주와 맥을 같이하며, 군사도시 원주의 상징적 공간이 바로 태장2동이다. 현재 원주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태장2동도 캠프 롱의 반환, 제1야전군 사령부 이전, 국군병원 부대 해체 등 군인과 상생했던 시간을 넘어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원주를 느끼고자 한다면 태장2동으로 가면 된다.’

원주를 스토리텔링하고, 스토리두잉하는 것이
태장2동의 미래희망이다.

태장2동은 왕에게 선택받은 마을로서 원주 북부에 자리잡은 생명의 땅이면서 명당이었던 것이다.

생명의 땅 태장2동의 주인은 주민이다.

원주시를 상징하는 마을이었기에 주민의 주권보다는 시민의 주권이 강했다.
생명의 땅. 그 주권을 시민에게서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泰然自適 태장2동

태연자적(泰然自適)

泰然(태연) :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로움
自適(자적) :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김

태연과 자적의 합성어로 원주시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인 태장2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시민과 상생하는 원주의 상징마을로 여유롭게 태연자적하며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